

완벽주의 성향을 매개로 한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Mediated Perfectionism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전임강사 민 성 혜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신 혜 원

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Lecturer : Sung Hye Min

Department of Child Studies, Seokyeong University
Lecturer : Hye Won Shin

목 차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해석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and the role of perfectionism. Undergraduate students(N=416) were administered a questionnaire on parent and peer attachment, and the results were characterized by the well-being scale, and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rust had a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whereas isol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Parental communic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Self-orientated perfectionism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had a positive effect on positive affection and life satisfaction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had a positive effect on negative affection. A hierarchial strategy for multiple regression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ole of perfectionism. The result indicated that self-oriented perfectionism mediated the effect of communication on positive affection,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mediated the effect of trust on negative affection. In additio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mediates the effect of isolation on negative affection.

주제어(Key Words): 부/모 애착(parental attachment),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완벽주의 성향(perfectionism)

I. 서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행복을 느끼는 정도도 다르다. 유사한 종류의 경험을 유사한 정도로 한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느낄 것이며 이를 통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행복을 주제로 연구하기 위해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연구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Diener(1984)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가로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분이 아닌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안녕감'이라고 하였고, Veehoven(1991)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질적 수준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또한 McDowell과 Newell(1990)은 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총체적인 감정으로서 개인의 지각된 주관적인 만족감과 행복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조윤주, 2007, 재인용). 조윤주(2007), 허현정(2004) 등은 이를 객관적이고 외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내적인 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이라고 하였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여 보면, '행복감'이라는 용어보다 '주관적 안녕감'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감정이 개인의 경험 내에 존재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및 인지적 평가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은 통합된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되기도 하나, 부분으로 나누어 인식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된다. Diener(1984)는 외부적 기준에 의해 정의되는 것, 주관적인 관점에서 정의되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분류된다고 하였고, Abbey와 Andrews(1985)는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삶에서의 성공이나 자신에 대한 인지적 평가, 전반적인 삶에 대한 평가와 영역별 삶에 대한 평가의 다섯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조윤주(2007)는 이를 인지적인 측면의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인 측면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의 요소를 지니는 것이라 하였다. 즉, 주관적 안녕감은 크게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나누어져 판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지적 안녕감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생활만족감(life satisfactions) 즉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해석한 결과에 좌우된다(이수경, 2003). 이에 비해 정서적 안녕감은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이 우세한 심리상태로 정의된다(조윤주, 2007). 즉 자신이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로 어떻게 느끼느냐와 관련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관적 안녕감을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이 주관적 안녕감을 낮은 수준으로 경험하게 되는지에 관심이 가게 된다. 지금까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소득, 교육, 성별, 학력 등(이은경, 2005; 조윤주, 2007)의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성향, 애착 등(김명소, 성은현, 김혜원, 1999; 이은경, 2005) 개인 내적인 요인들이다.

그런데 주관적 안녕감을 주로 연구하는 Diener와 Suh(1997)는 외적이고 객관적이고 상황적인 요인들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다고 하였다. 또한 일시적인 사건보다는 다양한 상황에 걸쳐서 일관적이고 전 생애 동안 안정적이게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성향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향과 애착에 근거하여 주관적 안녕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 초기 경험에 중점을 둔 애착 연구들은 영아기의 애착 과정의 설명과 안정적, 불안정적 영아-양육자 애착관계에 대한 발달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연구하여 그 중요성을 입증해왔으나 90년대 이후 전 생애에 걸친 애착과정에 초점을 두어 유아기, 아동기 애착 및 성인 애착에 대한 개인차와 기능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신혜원, 2004). 성인이 되었을 때 개인은 애착유형에 따라 형성된 인지적 도식(cognitive map)을 가지고 생활하게 된다. 이 도식을 Bowlby(1973)는 내적 실행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라고 하였다. 이는 자신, 타인 그리고 관계에 대한 개인의 지각, 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정신과정이 된다(유영미, 2004).

내적 실행 모델은 통제체계 안에서 감각적인 투입과 인지적인 투입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며 전 생애에 걸쳐 기대, 지각,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Bretherton, 1985: 11-14; Main, Kaplan, & Cassidy, 1985: 74-77).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여 긍정적인 내적 실행 모델을 가지고 상황과 사물을 바라보는 개인은 자부심이 높으며(민성혜, 이영, 2006),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관계에 신뢰감을 가지고 참여하며(Collins & Read, 1990),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 더욱 활성화되고 개인적 사회적 정체감 형성이 잘되어 전반적인 적응도가 높다(Lapsley, Rice, & Fitzgerald, 1990). 따라서 안정애착을 형성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가로 이루어지는 주관적 안녕감을 높은 수준으로 가지게 될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아직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노인을 대상으로 애착과 안녕감 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들이 몇 편 있을

뿐이다. Dawson (2000)은 안정애착을 가진 노인이 다른 애착 유형을 가진 노인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안녕감을 가진다고 하였고, Hopkins(1993)도 안정애착 유형의 노인이 다른 애착 유형의 노인보다 높은 수준의 안녕감을 가진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전귀연과 임주영(2002)이 노인을 대상으로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안정 애착이 정서적 경험으로 설명되는 안녕감 그리고 생활 만족도로 설명되는 안녕감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안녕감을 가졌다고 하여 국외 연구와 일관된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령층에서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연구를 한 논문을 찾아보기 힘들다.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개인 성향으로 최근에 완벽주의 성향이 이야기되고 있다. 자신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완벽주의 성향이 주관적 안녕감과 가지는 관계에 대한 몇 개의 연구들이 있다. 김현정과 손정락(2006)은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는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허현정(2004)도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주관적 안녕감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는 주관적 안녕감 수준을 낮추는 반면 타인 지향 완벽주의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완벽주의가 연구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 이상의 불가능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대해 강박적인 압박을 느끼며,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생산성과 업적에 전적으로 의존해 평가하는 단일차원의 부정적인 성향(허현정, 2004, 재인용)'으로 정의되었었다. 그러나 다차원적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면서 완벽주의에 대한 정의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연구하는 것만큼이나 긍정적인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완벽주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Chang & Rand, 2000). Hewitt와 Flett(1991)는 완벽주의 적 행동이 누구에게 귀인 되는가에 따라 완벽주의를 자기-지향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 타인-지향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social-prescribed perfectionism)로 분류하여 보았다(김현정, 손정락, 2006; 유미숙, 하은혜, 김혜진, 2004; 장애경, 2006; 허현정, 2004).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스스로 높은 개인적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의 수행을 평가하는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강한 내적 동기를 갖는 성향을 말하고,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이 그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할 것을 기대하며 수행을 엄격히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타인들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부과하며 자신

의 수행을 엄격히 평가하고 완벽하게 되도록 압력을 가한다고 믿는 성향을 말한다(김현정 외, 2006).

위에서 언급한 김현정과 손정락(2006) 그리고 허현정(2004)의 연구결과를 이에 기준하여 다시 살펴보면, 자신 스스로 높은 개인적 기준을 설정하고 강한 내적 동기를 갖는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가진 개인은 주관적 안녕감을 높은 수준으로 가져 긍정적 정서와 삶의 만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이 타인에 의해 주어지는 기준을 수행하는지 평가받고 압력을 받고 있다고 믿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가진 개인은 긍정적 정서와 삶의 만족은 감소시키며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켜 주관적 안녕감을 낮은 수준으로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숙경(1996)도 자기 지향 완벽주의는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키고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승희(1999)는 완벽주의와 안녕감 간에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허현정(2004)도 완벽주의 성향의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생활 만족에 대한 각각의 설명력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해 줄 보다 강력한 다른 설명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완벽주의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연구도 보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완벽주의 성향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요인이 가족 환경 특히 부모와의 관계였음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김은아(1997)는 부모가 자녀를 엄격하게 대하고, 조건적으로 반응하면 자녀가 완벽주의를 가지게 되고 이 경우 자녀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더 열심히 노력하면 부모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된다고 하였다. 김연실(2000)도 조건적 인정이 주어지는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잘 해내야 한다고 여기게 됨으로써 완벽주의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Rice와 Mirzadeh(2000)는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맺은 개인은 적응적 완벽주의를 가진다고 하였고, 국내에서도 윤은정(2001), 장애경(2006)이 애착과 완벽주의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특히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이 부 적응적 완벽주의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안정된 애착으로 얻어진 긍정적인 자기 평가는 청소년 이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최은실, 2001), 더욱이 대학생들은 가족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부모를 안전기지로 활용하고 부모의 도움을 구하는 전형적인 애착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최현영,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완벽주의 성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성인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한 가지는 애착 분류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부

와 모에 대한 애착의 차별성이다. 성인애착에 대한 분류문제는 아동 애착 분류보다 복잡해진다. 권아현(2000)은 불안형과 회피형이 혼재되어 나타난다고 하였고, Collins와 Read(1990)는 안정형과 회피형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Brown과 Wright(2001)는 성인의 경우 애착유형으로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였고(장애경, 2006,재인용), Armsden과 Greenberg(1987)는 유형으로 보기보다는 애착정도를 연속선상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Armsden과 Greenberg(1987)는 Bowlby의 애착 이론에 근거하여 애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으로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을 이야기하였다. 의사소통은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 시 의견을 존중해주며,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와 관련되는 개념이고, 신뢰감은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믿음으로 나타나는 개념이다. 그리고 소외감은 부모로부터 정서적 거리감을 경험하거나 부모를 향한 분노로 나타나는 개념이다. Armsden과 Greenberg(1987)는 이 개념들을 이용하여 애착의 정서적인 면과 인지적 면을 측정하여 점수화하는 자기 보고식·질문지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성인 애착 유형의 차이가 서로 혼재된다는데 동의하여 애착을 각 영역별로 측정하는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방법을 따르기로 한다.

성인애착과 관련하여 고려할 두 번째 문제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의 차별성이다. Bowlby(1969, 1982; 376-378)가 애착의 주 대상이 어머니라고 강조하였지만 연구자들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개인의 심리적 기능과 적응에 서로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환, 이진숙, 2003; Kenny & Gallagher, 2002).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주로 또래 수용도 그리고 대인간 관계와 관련하여 연구되었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아직은 일관되지 않으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보다는 개인의 역기능(dysfunction)과 관련하여 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Liu, 2006).

또한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살펴본 연구들도 아버지에 대한 애착만을 살펴보았을 뿐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이 살펴본 아 그 특징을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의 차이와 사회적 유능성을 연구한 McDonal와 Parke(1984)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이 서로 다르게 사회적 유능성과 연합됨을 밝혔다. 신지영(2002)도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보다 대인관계의 질에는 영향력이 컸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분리하여 살펴보고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대학생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대학생 완벽주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대학생 완벽주의 성향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학생 완벽주의 성향이 매개 역할을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2007년 3월 5일부터 3월 23일까지 서울의 2개 대학교와 충남 1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총 416명(남자 133명, 여자 283명)이었다. 이들에게 강의시간에 설문지를 집단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전체 학생의 평균연령은 21.34세이었고 부 생존하는 경우가 414명, 모 생존이 413명이었다.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327명이었고 따로 사는 경우가 89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대학생 애착

대학생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정정숙(199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에 대한 정의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의 애착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 시 의견을 존중해주며,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의사소통의 질,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믿음으로 나타나는 신뢰감,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거리감 또는 부모를 향한 분노로 나타나는 소외감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각각에 대해 총 28문항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소통의 질 요인이 10문항, 신뢰감이 10문항, 소외감이 8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하위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그 부분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 측정의 각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의사소통의 Cronbach' a 가 .87, 신뢰감이 .84, 소외감이 .75이었다.

2) 완벽주의 성향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Hewitt와 Flett(1991)가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성향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를 허현정(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기 지향 완벽주의, 타인 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며 7점 척도 4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하위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의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자기 지향 완벽주의, 타인 지향 완벽주의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각각이 .84, .73, .76이었다.

3) 주관적 안녕감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주관적 안녕감을 정서경험과 생활만족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정서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Watson, Clark와 Tellegen(1988)이 제작한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 척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ale: PANAS)를 이주성(199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 10개와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선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합산해서 주관적 안녕감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상관이 낮고 독립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허현정, 2004, 재인용)로 미루어 각각의 독립적인 효과를 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각각 .77, .82였다.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는 Diener, Emmons, Larsen 과 Griffin(1996)의 생활 만족도 도구(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류연지(199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7점 척도 5문항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87이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대학생의 애착, 완벽주의 성향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에 대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과,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완벽주의 성향과 그리고 완벽주의 성향이 주관적 안녕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부/모에 대한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매개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각 연구문제별로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측정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회귀식의 기본가정인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표 1> 부/모 애착, 완벽주의 성향, 주관적 안녕감 간의 상관

(N=416)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모 애착	1.모의사소통	1.00											
	2.모신뢰감	.83***	1.00										
	3.모 소외감	-.57***	-.59***	1.00									
부 애착	4.부의사소통	.64***	.57***	-.47***	1.00								
	5.부신뢰감	.56***	.65***	-.46***	.79***	1.00							
	6.부소외감	-.56***	-.59***	.88***	-.60***	-.59***	1.00						
완벽주의	7.자기지향	.23***	.15**	-.04	.12*	.07	-.01	1.00					
	8.타인지향	.13*	.12'	-.06	.07	.04	.01	.45***	1.00				
	9.사회적	-.02	-.13**	.19**	-.05	-.12*	.21**	.37***	.29**	1.00			
안녕감	10.긍정정서	.29***	.30***	-.22***	.20**	.24**	-.24**	.37***	.16**	.04	1.00		
	11.부정정서	-.24***	-.27***	.42***	-.24**	-.27**	.43**	.12*	.02	.18**	-.09	1.00	
	12.생활만족	.31***	.39***	-.39***	.30**	.38**	-.39**	.09	.02	-.08	.41***	-.32**	1.00

*p<.05 **p<.01 ***p<.001

을 실시한 결과(〈표 1〉 참고), $r=.7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배제되었다.

1. 대학생 부모에 대한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연구문제 1에 따라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 중 신뢰감은 생활만족도를($\beta=.31, p<.001$), 소외감은 부정정서와 생활만족도를(각각 $\beta=.40, \beta=-.25$)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 중 신뢰감은 긍정정서와 생활만족도를(각각 $\beta=.18, \beta=.30$), 소외감은 긍정정서, 부정정서, 생활만족도를(각각 $\beta=-.16, \beta=.44, \beta=-.28$)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 중 긍정정서 변량의 10%, 부정정서 변량의 18%, 생활만족도 변량의 19%를 설명하였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 중 긍정정서 변량의 16%, 부정정서 변량의 19%를 설명하였다.

이는 부모 양측에 대한 애착 중 신뢰감이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소외감이 부정정서 경험을 하게하고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즉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생각하고 그 부모에 대해 존경심과 믿음을 보이는 대학생은 생활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부모에게 정서적 거리감 또는 분노를 가지는 대학생은 부정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에 대해 신뢰하고 거리감을 덜 느끼는 대학생들이 긍정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는 어머니에 대해 신뢰하고 거리감을 덜 느끼는 정도가 대학생들의 긍정정서 경험을 서로 차이 나

게 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된다.

2.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완벽주의 성향과의 관계

연구문제 2에 따라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완벽주의 성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 중 의사소통은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를(각각 $\beta=.38, \beta=.35$)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신뢰감은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를($\beta=.35, p<.001$)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소외감은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를(각각 $\beta=.12, \beta=-.22$)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 중 의사소통은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를($\beta=.22, \beta=.23$)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소외감은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를($\beta=-.26, p<.001$)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대학생의 자기지향 완벽주의 변량의 7%,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 변량의 8%를 설명하였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자기지향 완벽주의 변량의 2%,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 변량의 6%를 설명하여 비교적 낮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연구 대상인 대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가족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고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인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애착이 대학생의 완벽주의에 대한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설명력은 낮지만 이에 대한 결과를 해석해 보면, 부모 양측에 대한 애착 중 의사소통이 자기 지향 완벽주의를 높이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역시 높이는 효과가 있었고 소외감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어머니에 대한 애착 중 신뢰감이 사회적으로 부과

〈표 2〉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N=416)

부모 애착		주관적 안녕감	긍정정서	부정정서	생활만족도
			β	β	β
모애착	의사소통		.14	.05	-.09
	신뢰감		.15	-.08	.31***
	소외감		-.06	.40***	-.25***
	R^2		.10	.18	.19
	F		14.78***	29.86***	32.548***
부애착	의사소통		-.04	.09	-.10
	신뢰감		.18*	-.08	.30***
	소외감		-.16**	.44***	-.28***
	R^2		.16	.19	.19
	F		11.05***	32.35***	.19

** $p<.01$ *** $p<.001$

〈표 3〉 부/모에 대한 애착이 완벽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

(N=416)

부/모 애착	완벽주의	자가지향	타인지향	사회적 부과
		β	β	β
모애착	의사소통	.38***	.10	.35***
	신뢰감	-.09	.05	-.29***
	소외감	.12*	.03	.22***
	R^2	.07	.02	.08
	F	10.34***	2.328	11.09***
부애착	의사소통	.22**	.13	.23**
	신뢰감	-.05	-.02	-.15
	소외감	.09	.07	.26***
	R^2	.02	.01	.06
	F	3.14*	1.16	9.24***

* $p < .05$ ** $p < .01$ *** $p < .001$

된 완벽주의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즉,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대화 시 의견을 존중해준다고 생각하는 대학생은 자기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의 수행을 평가하는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타인들이 부과한 기준에도 부합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부모에게 정서적 거리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는 대학생도 자기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하고 타인들이 부과한 기준에도 부합하려고 하였다. 다만 어머니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믿는 대학생들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

3.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연구문제 3에 따라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가지향 완벽주의는 주관적 안녕감 중 긍정정서와 생활만족도(각각 $\beta = .41, \beta = .14$)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가 긍정정서, 부정정서, 생활만족도에(각각 $\beta = -.11, \beta = .17, \beta = -.12$) 유의한

〈표 4〉 완벽주의 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N=416)

완벽주의	주관적 안녕감	긍정정서	부정정서	생활만족도
		β	β	β
자가지향		.41***	.08	.14*
타인지향		.01	-.06	-.01
사회적부과		-.11*	.17***	-.12*
	R^2	.15	.03	.02
	F	23.62***	5.67***	2.91*

** $p < .01$ *** $p < .001$

영향을 미쳤다.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은 주관적 안녕감 중 긍정정서 변량의 15%, 부정정서 변량의 3%, 생활만족도 변량의 2%를 설명하였다.

이는 자기 스스로 높은 개인적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의 수행을 평가하는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강한 내적 동기를 가지는 개인은 긍정적 정서경험을 많이 하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타인들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부과하며 자신의 수행을 엄격히 평가하고 완벽하게 되도록 압력을 가한다고 믿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개인은 긍정정서경험을 덜 하고, 부정정서 경험을 많이 하며 생활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4.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 관계에 대한 대학생 완벽주의 성향의 매개효과

연구문제 4에 따라 부/모에 대한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완벽주의 성향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Baron & Kenny, 1986).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논리는 첫째, 독립변인은 매개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하며 셋째, 매개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매개변인을 통제했을 때, 독립변인의 효과가 감소해야 하며, 만약 독립변인의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 주관적 안녕감, 완벽주의 성향의 각 하위 영역 간의 위의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변인 중심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5〉 부/모에 대한 애착 중 의사소통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 성향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N=416)

변인	β	ΔR^2
긍정정서경험(종속변인)		
1단계 모 의사소통	.32***	.14
2단계 모 의사소통, 자기지향	.22**	.05
1단계 모 의사소통	.32***	.14
2단계 모 의사소통, 타인지향	.28**	.08
부정정서경험(종속변인)		
1단계 모 의사소통	.19***	.01
2단계 모 의사소통, 자기지향	.29**	.08
긍정정서경험(종속변인)		
1단계 부 의사소통	.35***	.14
2단계 부 의사소통, 자기지향	.16***	.02
부정정서경험(종속변인)		
1단계 부 의사소통	.15***	.01
2단계 부 의사소통, 자기지향	.26***	.07

** $p < .01$ *** $p < .001$

1) 부/모에 대한 애착 중 의사소통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 성향의 매개효과

부/모에 대한 애착 중 의사소통이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완벽주의 성향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에 첫 번째로 부/모에 대한 애착 중 의사소통 변인을 투입하여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변인과 매개변인을 투입하여 이를 통제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와 β 값이 감소하는지를 각각 살펴보았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 중 의사소통은 자기지향과 타인지향 완벽주의를 부분 매개로 긍정정서에 영향을 미쳤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 중 의사소통은 자기 지향 완벽주의를 부분 매개로 긍정정서에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해 주고 대화 시 의견을 존중해준다고 생각하는 대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수행을 평가하는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긍정적 정서를 주로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 양측에 대한 애착 중 의사소통이 부정정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1단계보다 2단계의 β 값이 증가하였으므로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매개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부/모에 대한 애착 중 신뢰감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 성향의 매개효과

부/모에 대한 애착 중 신뢰감과 긍정정서, 부정정서 경험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 성향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첫 번째로 부/모에 대한 애착 중 신뢰감 변인을 투입하여

〈표 6〉 부/모에 대한 애착 중 신뢰감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 성향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N=416)

변인	β	ΔR^2
긍정적정서(종속변인)		
1단계 모 신뢰감	.33***	.14
2단계 모 신뢰감, 자기지향	.25***	.06
1단계 모 신뢰감	.33***	.14
2단계 모 신뢰감, 타인지향	.28**	.08
부정정서경험(종속변인)		
1단계 모 신뢰감	.16***	.01
2단계 모 신뢰감, 자기지향	-.30***	.00
1단계 모 신뢰감	.16***	.01
2단계 모 신뢰감, 사회적 부과	-.25***	.06
부정정서(종속변인)		
1단계 부 신뢰감	.15***	.03
2단계 부 신뢰감, 사회적 부과	-.25***	.06

** $p < .01$ *** $p < .001$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신뢰감변인과 매개변인을 투입하여 이를 통제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와 β 값이 감소하는지를 각각 살펴보았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에 대한 애착 중 신뢰감은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타인지향 완벽주의를 부분 매개로 긍정정서 경험에 영향을 미쳤고, 모의 신뢰감은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를 부분 매개로 부정정서 경험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대학생은 자신의 수행을 평가하는데 스스로와 타인으로 부터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이로 인해 긍정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부정정서 경험을 많이 하는 대학생은 자신의 완벽주의 성향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에 대한 애착 중 신뢰감은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를 부분 매개로 부정정서 경험에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대학생은 자신의 수행을 평가하는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이로 인해 부정정서를 많이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3) 부/모에 대한 애착 중 소외감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 성향의 매개효과

부/모에 대한 애착 중 소외감과 부정정서 경험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첫 번째로 부/모에 대한 애착 중 소외감변인을 투입하여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 살펴보고,

〈표 7〉 부/모에 대한 애착 중 소외감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 성향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N=416)

종속변인/독립변인		β	ΔR^2
부정정서경험(종속변인)			
1단계	모 소외감	.40***	.03
2단계	모 소외감, 사회적 부과	.11**	.15
부정정서경험(종속변인)			
1단계	부 소외감	.41***	.03
2단계	부 소외감, 사회적 부과	.10***	.16

** $p < .01$ *** $p < .001$

그 다음에 소외감변인과 매개변인인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를 투입하여 이를 통제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와 β 값이 감소하는지를 각각 살펴 보았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 양측에 대한 애착 중 소외감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부분 매개로 부정정서에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거리감 또는 부모를 향한 분노로 나타나는 소외감을 많이 가진 대학생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이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완벽주의 성향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에 대한 애착이 완벽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 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완벽주의 성향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연구문제별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에 대한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 양측에 대한 애착 중 신뢰감이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소외감이 부정정서 경험을 하게하고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즉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생각하고 그 부모에 대해 존경심과 믿음을 보이는 대학생은 생활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부모에게 정서적 거리감 또는 분노를 가지는 대학생은 부정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을 연구한 박인

숙(2005), 유경자(2005)는 안정애착을 가진 개인이 긍정정서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이 긍정정서와 부적 상관을 보이고 부정정서와 정적상관을 보였다고 보고 하였다. 이는 Dawson(2000), Hopkins(1993), 전규연과 임주영(2002)의 연구에서도 일관적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애착을 유형화하지 않고 Armden과 Greenberg(1987)가 애착의 개념을 가장 민감하게 측정한다고 한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을 가지고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특히 애착의 개념 중에서도 신뢰감과 소외감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부모와의 안정 애착으로 신뢰로운 도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부모와 정서적 거리감도 느끼지 않은 대학생은 긍정적인 내적 실행 모델을 가지게 되어 자신을 포함한 현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한다(고소희, 2000). 반면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하여 신뢰로운 상을 가지지 못한 개인은 자신이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여 자신을 포함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본다. 즉 자신을 포함한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부정적인 경향이 있어 주관적 안녕감을 낮게 지각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에 대해 신뢰하고 거리감을 덜 느끼는 대학생들이 긍정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는 어머니에 대해 신뢰하고 거리감을 덜 느끼는 정도가 대학생들의 긍정정서 경험을 서로 차이 나게 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된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애착안정성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연구한 박경희(2006)는 아버지와와의 애착에서는 의사소통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가장 많이 설명하였고, 어머니와의 애착에서는 신뢰감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설명한다고 하였다. 이는 송여옥(2002), 최홍규(2000), Collins와 Read(1990)등의 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이를 통해 어머니 아버지와와의 애착이 서로 다른 영역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대학생 자녀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살핀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추후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완벽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 양측에 대한 애착 중 의사소통이 자기 지향 완벽주의를 높이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역시 높이는 효과가 있었고 소외감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어머니에 대한 애착 중 신뢰감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Rice와 Mirzadeh(2000), 장예경(2004) 등은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여 신뢰로운 관계를 가지는 개인이 적응

적 완벽주의를 가지고 불안하거나 회피적인 애착을 형성한 개인이 부 적응적 완벽주의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부모와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 시 의견을 존중해주며,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의사소통을 한다고 보는 대학생들이 자기 지향 완벽주의를 가지나 다른 연구결과들(장애경, 2004; Rice *et al.*, 2000)과 달리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연구결과들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로 가정해볼 수 있다. 우선 연구대상의 연령 때문일 수 있다. 대학생시기에 성취 추구적 완벽주의자는 어느 정도의 불안도 같이 보이지만 긍정정서를 함께 가진다고 하였고, 반면 실패 회피적 완벽주의자는 불안을 많이 보이고 자존감도 낮으며 부정정서를 많이 가진다(남궁혜정, 2002)고 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대입에 대한 부담이 있고 좋은 대학교에 가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한다. 박병탁, 이종점, 정성덕과 정종학(1985)은 대입에 대한 부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신입생일수록 불안이 높다고 하였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불안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이 21.34여서 주로 1학년과 2학년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할 때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가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제한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혹은 애착의 주요개념을 근거로 만든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척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식되기에 안정적 애착과 연결되는 개념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아버지에게 나의 걱정거리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어려운 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다'는 것에는 의사소통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야기 한다' 혹은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주시다'만으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도 역시 제한된 연구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연구들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주관적 안녕감 중 긍정정서와 생활 만족도에 자기 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영향을 미쳤고, 부정정서에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을 미쳤다.

자기 지향 완벽주의 즉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그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기화되는 대학생들은 긍정정서 경험으로 안녕감을 가지고 생활만족도도 높았다. 이는 자기 지향 완벽주의가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김현정, 손정락, 2006; 허현정, 2004)과 같은 결과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즉 타인들이 자신에게 비현

실적인 기준을 부여하고 자기 수행을 엄격히 평가하고 완벽하게 하도록 압력 한다고 믿는 대학생들은 부정정서를 경험하였다. 이도 역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주관적 안녕감 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한 선행연구들(김현정, 손정락, 2006; 허현정, 2004)과 같은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완벽주의 성향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첫째로 부/모에 대한 애착 중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이 긍정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자기 지향 완벽주의가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문제 1의 결과에서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을 높은 수준으로 가진 대학생이 자기 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나타냈으나, 긍정정서로 이어져 주관적 안녕감을 주는 것은 자기 지향 완벽주의 뿐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이 높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통하면 주관적 안녕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부/모에 대한 애착 중 신뢰감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본 결과, 부/모 양측에 대한 애착 중 신뢰감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매개로 부정정서에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도 부모에 대해 믿음이 적은 대학생들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가지고 부정정서를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는 애착과 관련해서 부모와 자녀간의 신뢰감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 중 신뢰감이 자기 지향 완벽주의와 타인 지향 완벽주의를 매개로 하여 긍정정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완벽주의 성향이 차이나고 그로 인해 주관적 안녕감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부/모에 대한 애착 중 소외감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본 결과,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거리감 또는 부모를 향한 분노로 나타나는 소외감을 많이 가진 대학생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이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함을 알 수 있었다. 애착을 형성하면서 부모와 정서적으로 친밀하지 못하여 부모를 안전기저로 사용하지 못하는 개인은 '어머니/아버지는 요즘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 등의 생각을 한다. 이러한 개인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가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여(신혜원, 2004) 불안 정서를 많이 경험한다.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질적 수준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정도(Veehoven, 1991)가 주관적 안녕감이라고 할 때, 지속적으로 자신에 대해 자신감

이 부족하고 부모에게도 의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개인이 주관적 안녕감을 낮은 수준으로 가질 것임은 쉽게 가정해 볼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주관적 안녕감이라고 할 때 모든 개인이 주관적 안녕감을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유지하고 싶어함을 예상할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통합적인 개념을 단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발달과제로서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해야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어린 시절에서부터의 관계 경험으로 인한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적인 완벽주의 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부/모와의 애착이 완벽주의 성향을 거쳐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결론을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에 대한 애착은 주로 자기 지향 완벽주의 성향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을 매개로 긍정정서, 부정정서 그리고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 양측에 대한 애착 중에서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은 자기 지향 완벽주의를 매개로 긍정정서에 영향을 주었고, 낮은 수준의 신뢰감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매개로 부정정서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소외감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매개로 부정정서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부모와 신뢰감을 형성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임의표집한 대학생 특히 1,2학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그 사례수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모든 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는 추후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완벽주의 성향이나 주관적 안녕감의 개념 자체가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할 때 선행연구와의 비교나 이론과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좀 더 많은 연구와 개념연결 작업을 통해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주관적 안녕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으며, 이는 애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 참고문헌

고소희(2000). 성인 애착 유형이 자기 위로 능력과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권아현(2000). 애착 유형에 따른 자기상이 대인지각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명소, 성은현, 김혜원(1999). 한국 기혼여성(아줌마)들의 성격 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여성*, 4(1), 41-55.

김연실(2000). 부모권위에 따른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은아(1997). 부모와 자녀의 완벽주의 성향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형정, 손정락(2006).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1(2), 345-361.

남궁혜정(2002). 성취 추구적 완벽주의 및 실패 회피적 완벽주의와 부적응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류연지(1996). 성격 및 욕구수준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성혜, 이 영(2006). 이야기를 통한 아동 내적 표상과 행동 억제. *아동학회지*, 27(3), 81-100.

박경희(2006). 부와 모에 대한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병탁, 이종범, 정성덕, 정종학(1985). 불안척도에 의한 대학생의 정신건강평가. *영남의대학술지*, 2(1), 113-122.

박인숙(2005). 청소년의 애착 경향성이 사회적 지지요청 및 지지지각,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송여옥(2002).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신지영(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 애착수준, 유능감 수준 및 교우관계의 질적 특성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신혜원(2004). 3-4세 유아 애착행동과 애착표상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유경자(2005). 애착이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유미숙, 하은혜, 김혜진(2004). 완벽주의 성향의 발달 요인에 관한 연구: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의 기능적 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유형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1(3), 425-444.

유영미(2004). 어머니의 양육체제와 유아의 애착체계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윤숙경(1996). 완벽성향과 자기개념에 따른 대학생의 지연

- 특성의 차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은정(2001). 애착과 성취동기가 완벽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수경(2003). 여대생들의 긍정적 착각과 주관적 안녕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승희(1999). 완벽성향이 내외동기, 성취목표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영환, 이진숙(2003).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표상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 표상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33, 9-91.
- 이은경(2005). 신경증과 외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긍정적 정서의 중요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주성(1991). 외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의 상호작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애경(2006).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우울수준에 대한 부적응적 완벽주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귀연, 임주영(2002). 노인의 애착 유형과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2(3), 173-191.
- 정정숙(1994). 자아 정체감과 독립성 및 애착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윤주(2007). 생산적 활동이 여성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요구-조절-지지 모델의 적용.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은실(2001). 애착과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현영(200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과 역기능적 진로사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홍규(2000). 아버지와 자녀의 축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허현정(2004). 완벽주의 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열등의식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bbey, A., & Andrews, F. M.(1985). Modeling the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life qual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 1-34.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3.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owlby, J.(1969/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retherton, I.(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3-35.
- Chang, E. C., & Rand, K. L.(2000). Perfectionism as a predictor of subsequent adjustment: Evidence for a specific diathesis-stress mechanism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129-137.
- Collins, N. L., & Read, S. 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Dawson, T. E.(2000). A life-span comparison of early attachment experiences to current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n elderly population. Texas A&M University Ph. Dissertation.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 Suh, E.(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 social, and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0, 189-216.
- Kenny, M. E., & Gallagher, L. A.(2002). Instrumental and social/relational correlates of perceived maternal and paternal attach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5, 203-219.
- Hopkins, J. B.(1993). Attachment, social support, activity, health, and well-being in senior wome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Ph. Dissertation.
- Lapsley, D. K., Rice, K. G., & Fitzgerald, D. P.(1990). Adolescent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561-565.

- Liu, Yih-Lan.(2006). Paternal/maternal attachment, peer support, social expectations of peer inter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dolescence*, 41, 705-721.
- Main, M., Kaplan, N., & Cassidy, J.(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p. 66-104).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 209).
- McDonald, K., & Parke, R. D.(1984). Bridging the gap: Parent 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on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 Rice, K. G., & Mirzadeh, S. A.(2000). Perfectionism, attachment,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304-314.
- Veehoven, R.(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1-34.

(2007년 9월 10일 접수, 2007년 10월 28일 채택)